

티엡의 뉴 암스텔 스쿨원의 정문

Entrance gates for the New Aemstel Schooltuin

2014년 2월, 1959년부터 어린이 공원으로 이용되던 Dr. L. 알마 스쿨원(Alma Schooltuin)이 암스텔 스쿨원(Aemstel Schooltuin)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암스텔 스쿨원은 9살에서 11살까지 약 500명 이상의 초등학교생들이 방문하여 자연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식물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학습 정원(school garden)으로, 풍광이 아름답고 풍부한 문화적 역사를 가진 암스테르담의 칼피슬란(Kaljesluis)에 위치한다.

암스테르담 남부 시 의회(Stadsdeel Zuid)는 암스테르담의 디자인 회사 티엡(Tjep)을 초빙하여 암스텔 스쿨원의 새로운 정문 디자인을 선보였다. 두 세트로 된 기념비적인 정문은 암스텔 스쿨원의 입구를 지키며, 이 역사적인 정원에 현대적 요소를 더해 주고 있다. 정문의 한 쪽은 칼피슬란에서 나오는 출구이며, 다른 한 쪽은 암스텔담(Amsteldijk)으로 연결되는 길 위에 세워지게 된다. 1636년에 만들어진 풍차, 리커몰렌(Riekermolens)이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정원의 부지는 바로 렘브란트가 감탄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던 곳이다.



티엡의 디자인은 정원과 그 주위 환경의 풍부한 동식물상, 고전주의 시대의 요소들, 그리고 동시대 도시의 그래픽티포그래피 구조물을 통합하여 창조한 것이다. 이 정문에 요구된 기능은 식물을 해치는 악명 높은 토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티엡의 설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인 프랭크 티엡케마(Frank Tjepkema)는 "이 디자인을 통해 공원 안쪽에서는 배곡하게 들어찬 식물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패턴을 볼 수 있다. 설치 당시 이 문은 폭 8m, 높이 4m로 세워졌으며, 사람들을 도시에서 역사적 풍경 너머로 안내하는 입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번역 손은신
자료 제공 티엡

2011년 프랭크 티엡케마(Frank Tjepkema)가 설립한 티엡(Tjep)은 전통적 디자인을 타파하는 디자인 회사로 인테리어, 건축, 상품, 가구, 시각, 보석 디자인 등 폭넓은 전문 분야를 가로지르며 활동하고 있다. Droog, Camper, Levi's, Heineken, British Airways, Feadship, Ikea 등 많은 유명 브랜드들이 티엡의 고객이다.

